

병무청, 「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

- ‘대를 이은 나라사랑, 병역명문가’ 슬로건으로 2026년 6월 18일 시상식 개최
- 대통령 표창가문인 애국지사 김재범 가문, 박영한 가문 등 25가문 수상 영예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6월 18일 시그니엘 서울(서울 송파)에서 ‘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병역을 이행한 47,738명, 10,511가문을 선정했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재범 가문은 애국지사의 후손가문이다. 3·1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여 시위행진을 벌이다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신 1대 고(故) 김재범님. 그 뜻을 이어받아 후손들도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였으며 유족연금, 퇴직금, 결혼축의금 등을 모아 3·1장학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 또다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박영한 가문은 3대에 걸쳐 13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였으며, 병역이행자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전히 나라사랑의 길을 걷고 있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당하고 훌륭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습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으며, 이런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배종현 (042-481-2635)
		담당자	사무관	최성욱 (042-481-2637)